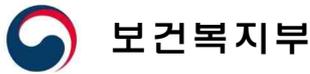


2018-2022 제2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종합계획

- 「양코르 라이프 플랜(Encore Life Plan)」 -

2018. 2. 2.



■ ■ ■ 목 차 ■ ■ ■

I. 정책여건	101
II. 정책대상자 분석	103
III. 그간의 정책평가	106
IV. 정책 비전 및 과제	111
[참고 1] 5년 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종합계획 정책 체계도	112
[참고 2] 5년 후 달라지는 모습	113
1. 참여자 역량 강화 및 보호 강화	114
2. 인프라 강화	117
3. 안정된 민간일자리 확대	122
4. 사회공헌 일자리 지원	124
V. 추진일정	126
[참고 3] 정책대상별 노인일자리 수	127
[참고 4] '18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개요	1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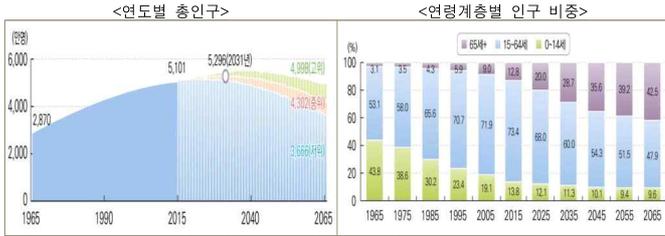
I. 정책여건

1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 증가

□ 저출산 장기화*, 고령화 심화에 따라 **향후 5년간 노인 인구가**(만 65세 이상) **약 2백만명**** 정도 추가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 합계출산율은 '01년부터 초저출산 수준인 1.3명 미만에서 등락, '저출산의 덫' 우려 평균수명(세) : ('70) 61.9 → ('90) 71.3 → ('00) 76.0 → ('15) 81.5 → ('20) 88.6
- ** '17년 708만명 → '22년 898만명, 190만명 증 ('16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정년 이후인 만 60세 이상 인구까지 포함 시 '22년 노인인구는 1,529만명으로 추정(2016,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출처: 2017 인구정책 통계집(복지부),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6

□ 노인인구 증가 및 급속한 은퇴에 따라, **노동력 부족, 숙련기술 단절**로 인해 **성장 동력 약화 우려**

- * '21년까지 상용직 베이비부머 연평균 20만명 은퇴('14년 장년고용 종합대책)
- * 노동생산성: '00년 4.5% → '17년 1.3%(OECD 통계, '17 제2차 노인일자리종합계획 연구)

○ 풍부한 인적자원을 통해 성장을 이뤘던 **인구 보너스기(Bonus)**에서 **인구가 성장에 부담이 되는 인구 오퍼스기(Onus)**로 전환

○ **성장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숙련기술과 풍부한 근로경험을 가진 노인인구를 적극 활용할 필요**

II. 정책 대상자 분석

1 노인의 근로현황 및 욕구

□ **노인의 근로 현황**

○ **만 60세 이상자의 취업률은 41.1%로 높지만**, 비임금근로자 비중이 높고(52.8%), 임금근로자의 68%는 비정규직으로 **고용지위가 불안정** ('17 제2차 노인일자리종합계획 연구)

○ 취업 직종도 **농림어업이나 단순노무직이 많고,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얻은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하기보단 하향 취업이 대부분**

- * 60~64세: 농림어업종사자 13.6%, 단순노무직 27.5%, 65세 이상: 농림어업종사자 34.9%, 단순노무직 32.9%('15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개편방향 연구)
- * 은퇴 전 기능원 47%, 사무직 44%, 서비스 종사자의 42.6%가 단순노무직에 근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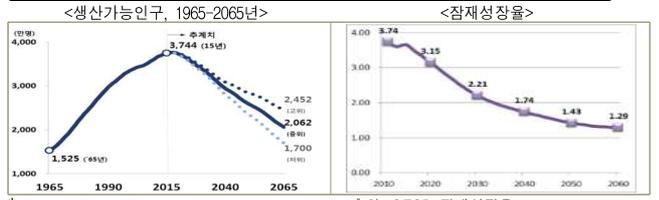
○ 비노인가구에 비해 **저임금근로 비중이 현저히 높고**, 소득 구성 중 근로소득 비중('15년 42.9%→'16년 41.4%)이 감소하고 있어, **근로의 질이 하락**

- * 저임금근로(연도별 중위 임금의 2/3 미만) 비중('16년): 노인가구 95.1%, 비노인가구 33.0%('17 제2차 노인일자리종합계획 연구)

<노인가구 소득원 및 소득원별 비중>

연도	구분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전이전소득
2015	비중	42.9	21.3	1.6	23.7	10.5
	금액	893	442	338	494	219
2016	비중	41.4	18.8	1.3	29.0	9.5
	금액	872	396	277	612	200

* 출처: '17 제2차 노인일자리종합계획 연구(노인인력개발원)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6

* 출처: OECD 잠재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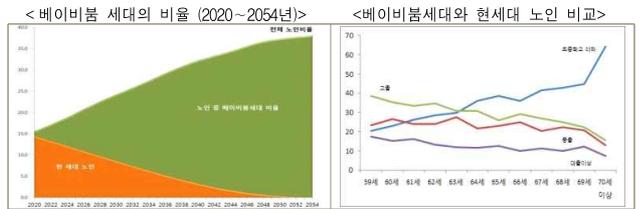
2 노인인구의 특성 다양화 및 취약노인 증가

□ 도시거주 증가, 교육수준 및 소득 향상 등 **노인의 특성 변화로 기존 노인일자리 정책의 양적·질적 변화 필요**

- * 도시거주: ('04년)67.9%→('14년)76.6%, 중·고교 이상:('04년) 25.0%→('14년) 37.6% (2014 노인실태조사)

○ 베이비부머의 노인세대 진입, 만 80세 이상 고령 노인의 비중 증가*에 따라 **학력, 소득, 근로능력 등 측면에서 노인집단이 다양화**

- * '28년에는 노인의 56.7%가 베이비부머 세대 ('15, 노인인력개발원) 만 80세 이상 노인 비중 '94년 12.4% → '15년 19.9%('16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



* 출처: '15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개편방향 연구(노인인력개발원)

□ 기초연금 등 복지제도 확대로 **노인빈곤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40% 후반대로 높고, 독거, 우울 노인 등 취약노인 증가**

- * 노인상대빈곤율: '13년 48.1%→'15년 44.8%, 독거노인: '05년 17.3%→'17년 18.9% →2045년 20.5%(통계청 소득분배지표 '16.5월,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17.4월)

□ 노인의 근로욕구

○ 높은 취업률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근로희망비율은 여전히 높고, 근로희망 상한연령도 72세로 정년(60세)/주된 일자리 퇴직연령(49.1세)과 큰 차이**

- * 61.2%의 고령자(만 55~79세)가 장래 근로 희망 ('17.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통계청), 65세 이상 노인의 33.2%가 향후 늘려야 할 복지 서비스로 고용(취업)지원서비스 선택(2016 고령자통계)

○ **근로희망 사유는 생활비 등 경제적 이유가 가장 크지만, 그 외 자아실현이나 사회공헌(일하는 즐거움)을 이유로 일하는 경우도 상당**



* 출처: 2015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개편방향 연구(노인인력개발원)

○ 건강, 여가시간 확보 등을 이유로 **시간제 일자리(주 30시간)를 희망** 하며 일자리 선택기준 중 **일의 양과 시간대가 임금수준보다 우선**

- * 2017년 고령층(55~79세) 근로 희망자의 일자리 선택 기준은 「일의 양과 시간제(26.3%)」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임금수준(25.0%)」(2017 고령층 부가조사)

- * 노인의 73%가 시·군·구 일자리 희망('15 노인의 취업실태 및 기업의 노인인력 수요에 관한 연구)

- 하지만 실제로는 **주 5일 이상 근무자가 67.3%, 주 40시간 근무자도 39.2%**에 달해 전일제 근무가 많은 편(2014 노인 실태조사)

【참고: 베이비부머의 특성 및 욕구】

- 한국사회 발전의 주춧돌로 인적자본이 높고 자부심이 큼
 - 베이비부머(55~63년생)는 총인구의 14%를(723만명) 차지하는 거대 집단으로, 한국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취한 자부심이 높은 세대
 - * 출처: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현황('17.3월)
 - 약 3A이 고졸 이상의 학력으로, 소득수준, 거주지 등 측면에서 현세대 노인과 다른 특성 및 인적자본 보유
 - * (65세 이상 노인 vs. 베이비부머) △ 고졸 이상 24.2% vs. 72.4% △ 자산 2.0억원 vs. 2.4억원 △ 컴퓨터 이용능력 12.8% vs. 74.7%(13, 미래고령사회 대응 베이비붐 세대 및 전·후 세대 실태분석)
- 노후 준비, 자녀부양 등 이유로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 지속 희망
 - 소득 및 자산 수준은 현세대 노인에 비해 양호하지만, 자녀 및 부모 부양, 은퇴 자금 등에 부담을 느끼며, 경제활동 지속 희망
 - * 베이비붐 세대의 공적연금 준비율 37.3%, 다층소득보장 갖춘 경우 4.8%
 - 반면, 노후생활로 삶에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사회적 기여활동에도 관심이 높으며, 정해진 활동을 하기 보다는 동호회 등 자조모임을 통한 주도적 활동을 선호하는 계층도 증가
 - * 베이비붐 세대 선호 노년활동: 취미생활(41.6%) 소득창출(19.0%), 사회적 기여 활동(17.0%), 종교활동(9.4%) 학습 등 자기계발활동(7.2%)의 순
 - * 동호회 참여율 12.8%, 현세대 노인 4.6% (13, 미래고령사회 대응 베이비붐 세대 및 전·후 세대 실태분석)

성공사례

- * 시니어인턴십: GS 리테일 등 편의점에 캐셔 등 인턴 사원으로 취업 지원
- * 기업연계형 사례: ① ㈜모터엠에이엔이 노인을 고용하여 자동차차사 업무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프리랜서로 운영되던 것을 4대 보험료 등을 지원하여 직접고용 형태로 전환 (24명, 월평균급여 118만원)
- ② CJ CGV가 노인을 고용하여 검표 등 영화관내 업무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CJ CGV의 시니어아트홀 설치비용 등 지원(110명, 월평균급여 65만원)

- 노인의 재능과 경력을 활용하는 재능나눔 도입('14년), 공익활동 중 노노케어 전국화('15년)를 통해 노인일자리를 통한 지역 복지 증진

< 현행 노인일자리 지원체계('17년 기준) >

대상	유형	내용	지원	전달체계	일자리수(천개)	
총 계						467
만 65세 이상	공익활동	노노케어, 보육시설 봉사, 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공익 증진 프로그램	월 27만 9(12)개월 활동비	노인 복지관, 시니어클럽 등	337	
	재능나눔	노인의 재능(자격, 경력)을 활용한 상담안내, 학습지도 등	월 10만 6개월 활동비	노인 복지관, 노인회	45	
만 60세 이상	시장형 사업단	실버카페, 반찬가게 등 제품 제조·판매, 서비스 제공 등 사업을 통해 수익 창출	연 200만원 사업비	시니어 클럽 등	55	
	인력파견형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수요처에 연계	연 15만원 사업비	무료직업소개소 등	19	
	시니어 인턴십	기업에서 인턴기회(3개월) 제공 후 계속 고용 유도	연 최대 270만원 인건비 보조	민간 운영기관	7	
	고령자 친화기업	노인 적합업종 분야 내 노인 다수고용 기업 설립 지원	최대 3억원 사업비	기업	2	
	기업연계형	기업이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모델개발, 장비·설비 구입 등 지원	연 200만원 내외 사업비 보조	인력개발원 기업	3	

Ⅲ. 그간의 정책 평가

1 그간의 성과

【제1차 노인일자리 종합계획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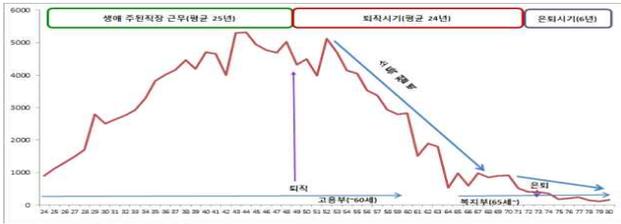
- ① 목표: 일을 통해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노인적합 일자리 확대
- ② 과제
 - 재정지원 노인일자리 확충 및 내실화
 - ① 노인일자리 매년 5만개 확충 및 참여기간과 보수 확대 ② 노노케어 확대 및 내실화 ③ 맞춤형 노인일자리 확대
 - 전달체계의 효율성 강화
 - ①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다양화 ② 일자리 수행기관 운영체계 개선 ③ 일자리 정보접근 어려움 완화
 - 민간분야 노인 취·창업 활성화
 - ① 시장진입형 일자리 경쟁력 강화 ② 체계적인 노인취업지원체계 구축 ③ 시니어직능클럽, 고령자친화기업 확대 및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 지원
- '13년부터 연 5만개의 재정지원일자리를 확대하고, 공익활동 수당을 인상(20만원→'17년 27만원)해, 정규시장에서 취업하기 어려운 노인의 사회참여 및 노후 생활안정 기여
 - * 일자리 수 : ('13) 24만개 → ('17) 43.7만개 / 국비: ('13) 2,477억원 → ('17) 4,664억원
- '11년부터는 정부 지원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다양한 민간일자리를 도입해 근로능력이 있는 만 60세 이상 노인에게 더 높은 보수를 제공하는 민간일자리 지원
 - * 시니어인턴십 및 고령자친화기업('11년), 기업연계형('17년) 도입

2 한계

- 저소득 노인을 위한 재정지원일자리 양적 측면 위주로 확대되고 보수 등 근로여건, 활동내용 개선 미흡
 - 공익활동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고 수당을 다소 인상하였으나, 노인빈곤율은 아직 높은 편
 - * 공익활동 대기자 66천명('17년), 수당 '04년 20만원→'17년 22만원→'17년 추경 27만원
 - 활동 프로그램 개발 없이 사업이 확대되어 지역환경개선과 같은 단순근로형 활동이 상당수로 지역사회 기여도 저조
 - * 공익활동 중 지역사회환경개선, 공공시설 관리가 37% 차지('17년 기준)
 - 노인생산물 제조·판매를 통해 수익창출을 추구하는 시장형 사업단의 보수*는 공익활동과 유사하거나 조금 높은 수준으로 경쟁력 저조
 - * 공동작업형 267천원, 제조판매형 351천원, 전문서비스형 202천원('17.8월)
 - 노인생산물은 품질이 낮거나 균일하지 않고 판로가 제한되어, 대량생산·판매를 통한 수익창출 미흡
- 저소득·고령 노인 대상 일자리 중심으로 확대되다 보니, 베이비부머나 근로능력·의사가 있는 노인 적합 일자리 제공 부족
 - 특히 정년과 실제 은퇴연령 간 격차 등으로 취업을 원하는 만 60세~64세 노인이 소외되는 정책 단절 발생
 - 일자리 정책 절벽은 소득 절벽 발생 및 장기화로 직결

2월 9일(금) 회의 종료 후부터 보도 가능합니다.

<생애주기별 경제활동상태와 소득절벽(crevasse)>



* 출처: '17년 제2차 노인일자리종합계획 연구

- 그간 정부정책은 대부분 직접일자리 사업의 비중이 높아, 민간 취업 희망자를 비보조급 일자리로 유도할 수 있는 **취업·알선, 직업훈련 서비스 등 고용서비스 제공 부족**
 - 고용센터, 노인취업지원센터에서 **취업알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인력 및 인프라 부족으로 기업 발굴, 맞춤형 취업지원 미흡
 - * 노인취업지원센터(194개) 중 1인 센터가 87% (168개소) 차지
 - **취업정보 산재 및 개인별 사례관리 서비스 미흡**으로 대부분 단순노무직으로 하향 취업하는 등 **어르신 생애경력과 일자리간 미스매치 발생**
- 민간일자리 활성화를 위해 **노인취업교육센터***를 통해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있으나, 인프라 및 **맞춤형 교육 부족**
 - * 노인취업교육센터: '16.10개소 → '17.15개소 지정
- 노인일자리에 대한 사회·기업의 관심이 저조하고 인건비 보조 외 **민간 기업이 자체적으로 노인 적합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인을 채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 부족**
- 사회에 만연한 **노인과 노인의 생산성에 대한 편견**(연령주의)으로 인해 민간에서 노인 고용 활성화 애로

2월 9일(금) 회의 종료 후부터 보도 가능합니다.

□ **전담인력 처우개선, 수행기관 확충, 근거법 마련 등 인프라 질 제고 노력은 미흡**

-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은 월보수(135.3만원)가 낮고, 인건비 지원도 11개월에 불과(17년 기준)
- 일자리 수는 급증하나, **수행기관은 '13년부터 1,200여개로 멈춰** 기관 당 평균 담당 일자리 수 증가
 - * 기관 당 평균 담당 일자리 수: '12년 221명 → '16년 384명 → '22년 670명

3 정책 대상자 전망

- '17년 기준 만 60세 이상자는 1,053만명('17년 통계청)으로 '22년에도 1,314만명으로 전망(2016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만 60세 이상자 중 활동능력이 있고, 근로나 봉사활동을 희망하는 자는 344만명**

<정책 대상 추계>

전반	활동능력	일자리/봉사활동 희망 ²⁾	소득 ³⁾
만 60세 이상 1,053만 ¹⁾	활동능력자 965만	일자리 희망 335.6만 (일자리·봉사 둘다 희망 159.1만)	상위 114.5만 중하위 221.1만
		봉사 희망 167.4만	상위 75.8만 중하위 91.6만
	일자리/봉사 모두 미희망 621.1만		
	활동능력 부족 88만명 (3급 이상 중증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 판정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출처: '17 노인일자리종합계획 연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1) 2017 통계청 주민등록인구 기준 2) 일자리 희망자는 소득활동 희망자로, 봉사활동 희망자는 자원봉사 희망자로 측정(2014 노인실태조사, 지은정 외(2015 바탕)) 3) 소득계층: 65세 이상은 기초연금수급여부로 구분(2014 노인실태조사), 60~64세는 가구소득 10분위 중 상위 30% 이상 여부로 구분 (2015 사회조사 분석)

2월 9일(금) 회의 종료 후부터 보도 가능합니다.

IV. 정책비전 및 과제

1 정책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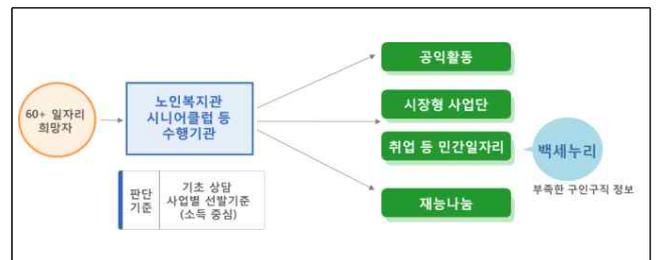
비전	보람있는 일, 활기찬 노후, 행복한 사회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 일자리 80만개 제공 및 민간일자리 창출 기반 확립 • 노인 역량 강화 및 사회활동 참여 활성화로 기여하는 노인상 정립

정책과제	내용
참여자 역량 및 보호강화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직무역량지표 개발 ② 개인별 활동계획 수립 및 사후관리 체계 구축 ③ 맞춤형 교육훈련 인프라 확대 ④ 참여자의 인권 및 안전보호 강화
인프라 강화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60+ 일자리 DB (가칭 "백세누리플러스") 구축 ② 노인-일자리 매칭플러스센터 지정 ③ 노인생산품 공동브랜드화 및 판로확대 ④ 상권분석 및 성장지원 서비스 제공 ⑤ 전달체계 다변화 및 투명성 강화 ⑥ 전담인력 처우개선 및 전문성 강화 ⑦ 법적 근거 강화 및 사회적 인식 개선
안정된 민간일자리 확대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전략직종 중심으로 시니어인턴십 개편 ② 세대통합형일자리 지원 ③ 우수 노인고용기업 인증 및 지원 ④ 시장형 사업단 자립 촉진 ⑤ 기업의 고용창출형 사회공헌 지원 활성화
사회공헌 일자리 지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시니어 사회공헌단(시니어 프로보노) 도입 ② 지역특화사업 및 지역기여사업 육성 ③ 재능나눔 및 노인자원봉사 효율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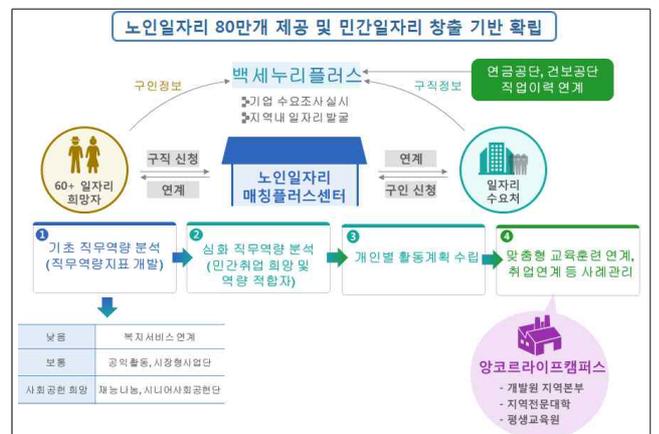
2월 9일(금) 회의 종료 후부터 보도 가능합니다.

참고 1 5년 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종합계획 정책 체계도

□ 현재



□ 5년 후



참고 2 5년 후 달라지는 모습

분야	과제	2017년	2022년
참여역량 및 보호 강화	직무역량 지표 개발	노인의 역량 분석 미흡으로 역량과 직무 불일치	체계적인 역량 분석 적합 일자리 매칭
	개인별 활동계획 수립	개인별 상담, 활동 안내 부족	개인별 교육훈련, 일자리 탐색·연계 지원
	교육 인프라 확대	노인 적합 교육 부족	맞춤형 교육훈련
	참여자 보호	작업장/활동처 마찰 발생 안전사고 보호 미흡	작업장/활동처 행동강령 마련 실버보험 개발로 안전관리 강화
인프라 강화	일자리 DB 구축	일자리 정보 부족	일자리 발굴 및 정보 제공
	매칭플랫폼 센터 지정	단순 취업 알선	상담, 교육, 취업 연계 사후관리 제공
	노인생산품 성장지원	낮은 인지도, 판로 제한으로 수익성 부족	브랜드화, 판로확대, 상권분석으로 수익성 계고
	전달체계 다변화 및 투명성 제고	부족한 수행기관 부정수급 발생	다양한 수행기관 확대 부정수급 관리 강화
	전담인력 처우개선	낮은 인급, 불안정한 신분	치우 개선 및 전문성 강화
	인식개선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	노인 근로자에 대한 인식개선
민간 일자리 확대	시니어인턴십 개편	단순 직종·직무 지원	전략직종·직무 지원 강화
	세대통합형 일자리	숙련기술자 은퇴로 기술 단절	숙련은퇴자의 기술, 노하우를 청년세대에 전수
	우수고용 기업 인증	노인 다수고용기업에 대한 지원 부족	노인 다수고용 기업 추가채용 지원
	시장형사업단 자립 촉진	지속적인 재정 의존	지원 일몰제 도입
사회공헌 일자리 지원	기업 사회공헌 지원	기업의 사회공헌 활용 부족	기업의 사회공헌을 양질의 민간일자리로 연계
	시니어 사회공헌단	베이비부머, 전문직 은퇴자 사회공헌 기회 부족	베이비부머, 전문직 은퇴자 사회공헌 일자리 지원
	지역특화 사업 육성	일지리의 지역 기여도 미흡 동일 수당(27만원)	일지리를 통한 지역 현안 해결 수당 인상 및 차등화 (최대 40만원)
	재능나눔 효율화	활동 내용 다양성 부족	활동 내용 다양화

2 개인별 활동계획 수립 및 사후관리 체계 구축

- 노인 직무역량 분석·상담을 토대로, 적합 민간일지리를 수행하기 위한 지역 내 일자리 및 유관기관 탐색, 교육훈련 및 취업 연계 등 로드맵을 담은 개인별 활동계획(Individual Activity Plan) 수립
- 활동계획에 따라 체계적인 서비스(교육훈련 및 취업 알선, 동행면접 등)를 제공해 취업 성공가능성 제고
 - 취업자는 근로여건 모니터링, 취업 후 애로사항 등을 점검하고, 미취업자는 실패요인을 분석해 재취업을 지원하는 등 사후관리 제공

< 개인별 활동계획 수립 및 사후관리 체계 >



* 출처: 제2차 노인일자리종합계획 연구(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17)

2 세부 추진방안

1. 참여자 역량 및 보호 강화

◆ 노인의 경험과 역량을 분석해 맞춤형 교육훈련과 일자리를 지원하겠습니다.

1) 직무역량지표 개발 및 매칭서비스 제공

- 60세 이상 노인의 역량과 적합직무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 맞춤형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일자리 매칭에 활용
 - * 노인의 기초역량, 활동역량, 업무태도 등 역량과, 직무별 기술, 작업환경, 책임을 분석, 노인 직무역량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18년)

< 직무역량지표(안) > <노인의 역량과 직무요구역량>



* 출처: 제2차 노인일자리종합계획 연구 공청회 발제문(노인인력개발원 2017)

- 개발된 직무역량지표는 민간일자리 상담·연계 및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선발기준 개편에 활용
- 기초 직무역량지표를 통해 노인의 역량 분석 후, 일정 점수 이상자는 공익활동, 재능나눔 등 일자리로 매칭
- 민간취업 희망 및 적합자는 희망과 역량, 취업기업의 직무에 대한 심층 평가를 통해 맞춤형 교육훈련 및 일자리 매칭
- 근로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역량을 갖추지 못한 노인은 복지 서비스로 연계

3 맞춤형 교육훈련 인프라인코르 라이프 캠퍼스 확대

- 직업전문대학, 사이버대학, 평생교육원, 노인대학 등도 노인 대상 직업교육훈련과정을 개발·제공할 수 있도록 '앙코르 라이프 캠퍼스 (Encore Life Campus)'로 지정해 지원
 - 現 취업교육센터를 앙코르 라이프 캠퍼스로 개편·확대하고, 사업비도 프로그램에 따라 차등화
- 지역 내 어르신 및 기업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기업,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연계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맞춤형 교육 제공
- 지식과 경험을 나누고 싶은 어르신 누구나 강의를 개설하고, 배우고 싶은 누구나 수강하는 온·오프라인 교육 플랫폼 도입 (가칭 '우리 동네 시니어선생님')
 - * 온라인(백세누리 사이트)을 통해 노인/주인이 강의 개설 및 수강신청을 하고, 앙코르라이프캠퍼스, 주민센터 등 지역 내 유휴공간에서 교육, 강의는 무료로 제공 하되 필요시 재료비 등 실비 지원('18년 시범사업 실시)

수원시 누구나 학교

▶ 남녀노소 누구나 강의를 개설하고 누구나 참여하는 모델로, 강의를 원하는 사람이 강의개설을 신청하면 수원시 평생학습관에서 코디네이터 역할을 해 강의 승인 및 운영

4) 참여자의 인권 및 안전보호 강화

- 참여자 인권을 보호하고, 작업장/활동처와 참여자간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장/활동처 행동강령을 마련('18년) 하고, 위반 시 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
- 공익활동 참여자를 위해 현행 상해보험보다 보장수준이 높고, 보장기간이 긴 민간보험상품을 실버보험으로 개발
 - * 자주 발생하는 사고 및 보상 현황 분석, 현장 의견 수렴, 민간보험사 협의 ('18년)를 통해 선정('19년)

2. 인프라 강화

(1) 매칭서비스 제공

◆ 일자리 상담부터 교육·취업 연계, 사후관리까지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 60+ 일자리 DB “백세누리플러스” 구축

- 우수 수행기관 등에 **일자리 전담 발굴단(가칭 ‘시니어취업컨설턴트’)**을 구성해, 지역 내 **일자리 자원 파악 및 DB화**(가칭 ‘백세누리 플러스’)
 - DB화를 촉진하기 위해 일자리 발굴 건수, 게시 건수에 따라 평가 등 인센티브 제공
-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시스템 등 **관계 정보시스템간 연계**를 통해 **맞춤형 일자리 정보 제공**
 - 지역 일자리 정보 DB화(현행 노인일자리 인력파견형 시스템 활용), 백세누리와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시스템 연계('18년), 백세누리를 백세누리 플러스로 개편('19년)
 - 고용부 워크넷과 정보 공유 등 연계 강화
- 연금공단, 건보공단의 **직업이력과 연계**해, 생애경력에 맞는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2 노인-일자리 매칭플러스센터 지정 및 매칭서비스 제공

- 지역 내 **우수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을 노인-일자리 매칭플러스센터로 지정**해 **일자리 상담·교육·취업 연계·사후관리 등 통합서비스 제공**
 - 직업상담사, 기업 인사담당자 등 **전문직 은퇴자를 매칭플러스센터에 배치**(가칭 ‘시니어취업컨설턴트’)해 **어르신 직무역량 진단 및 개인별 활동 계획 수립, 일자리 연계 및 면접동행, 사후관리 등 서비스 제공**
 - 매칭플러스센터 모형 개발 관련 연구용역 실시('18년)
 - 정규 노동시장에서 근로 가능한 고령구직자는 고용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 등과 연계, 필요시 지역 여건에 따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에 입주해 서비스 제공 검토
 - 시니어취업컨설턴트는 노인일자리를 활용(시니어 사회공헌단 등)해 지원

- 장기적으로 일자리 외 건강, 봉사, 여가 등 노인 복지 관련 원스톱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매칭플러스센터 기능 확대

* 현 시니어클럽, 복지관 운영비 등을 활용해 추진

<매칭플러스센터 기능>



* 출처: 제2차 노인일자리종합계획 연구(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17)

(2) 민간 노인일자리 성장체계 구축

◆ 좋은 품질의 노인생산품이 판매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 우수 노인생산품 공동브랜드화(품질인증)

- 시장형사업단, 고령자친화기업 생산품 중 **주요 업종·품목별로 우수 상품을 선정(연 1개)**하고 시장형 사업단간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 브랜드 창출**
 - 노인생산품 자체를 강조하기보다 제품 특성, 경쟁력을 표현할 수 있는 브랜드명 채택

브랜드 상품 예시

- ▶ 아파트 실버택배: 현재는 개별 사업단 별로 택배수량 및 단가를 협상해 사업단별로 택배 단가가 상이하나, 공동브랜드 형성을 통해 협상력 제고 및 잡어 노인 처우 개선
- ▶ 김부각, 한과: 동일한 레시피로 대량 생산해 온·오프라인 마켓에서 대량 판매

- **공동브랜드 홍보**를 통한 브랜드 파워 제고, **동일 제품 대량 생산, 품질 표준화**, 원재료 공동구매 등을 지원해 **노인생산품/서비스 경쟁력 제고 및 검증 아이템 전국 확산**

<우수 노인생산품 공동브랜드화 단계별 추진방안>



* 출처: 제2차 노인일자리종합계획 연구(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17)

○ 공동브랜드화 관련 주체별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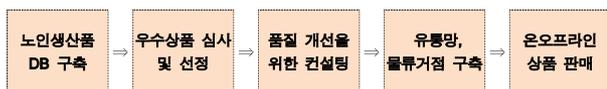
주체	역할
복지부	사업 총괄 및 관리
개발원, 전문가	우수상품 선정, 품질 개선, 판매활성화 지원, 성과관리
시니어클럽협회	시장형사업단 수요조사, 사업단간 컨소시엄 구성 및 협력방안 모색

* 개발원 성장지원센터 내 ‘브랜드추진단(가칭)’ 운영(업무협조: 한국시니어클럽협회)

2 노인생산품 판로확대

- **쇼핑몰, 민간유통업체 등과 협력**해 경쟁력 있는 노인생산품의 품질을 개선하고 **홈쇼핑·온라인 쇼핑물 등에 판매 지원**

<단계별 노인생산품 판로지원방안>



- 해외 시장조사를 통해 아이디어 상품(예: 애완동물용품)을 개발해 제작하고 해외 오픈마켓 진출을 위한 **정보제공·행정지원**
 - 제품촬영(고해상도), 외국어번역, 상품배송, 온라인광고(키워드) 및 상품구성 등

- 지역 노인일자리 활용, 기업과의 협조를 통해, **판로확대에 필요한 유통망, 물류 거점기지를 구축**

노인생산품 판로확대 사례

<홈쇼핑·온라인 쇼핑물 진출>

- ▶ 고령자친화기업 주)고수목의 **모시떡 홈쇼핑 진출** 및 6천 set 완판('16년) +1만set 완판('17년)
- ▶ 고령자친화기업 주)여수꽃방의 **제과제빵상품을 G마켓에서 판매**('17년)
- ▶ 시흥시니어클럽/천사랑 시장형사업단의 **면생리대, 서귀포시니어클럽 양초를 G마켓 및 11번가에 입점**('18.1월 예정)

<해외 Amazon 진출>

- ▶ **아미존(Amazon)에서 시흥시니어클럽/천사랑 시장형사업단의 면생리대 230개 약\$1,300 판매**('17.12월)

3 상권분석 및 성장지원서비스 제공

- 신규 시장형사업단 및 고령자친화기업 **설립 전에** 대해 동종 업종 과밀정도, 기존 상권과의 관계, 성공가능성 등 **상권 분석 및 정보 제공**
- **사업계획의 적합성, 기술·인증, 디자인, 판로 등 종합적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 사업 초기단계부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
 - 노인일자리 성장지원센터를 개소해('17.3월) 디자인, 기술·인증지원 등 총 109건 컨설팅 지원

(3) 전달체계 강화

◆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겠습니다.

1 노인일자리 확충을 위한 전달체계 다변화

- 지자체의 시니어클럽 설치 유도, 노인복지관 필수사업으로 노인 일자리 포함 등을 통해 **기존 일자리 수행기관의 참여 확대**
 - 현재 노인일지리는 노인복지관 선택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쉰 노인복지관의 85%만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사업 물량(48.5명)도 시니어클럽(55.4명) 보다 적은 편
- (사회적)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기관을 수행기관 또는 수요처로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
 - 장기적으로 어르신이 일자리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교육 등을 통해 자조조직 결성을 촉진하고,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으로 참여 허용

협동조합 사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시니어생애경력설계사(Senior Life Career Advisor) 교육 이수자(07년, 40명)들이 협동조합을 설립해 시니어인턴십 운영기관, 인력파견형 수행기관으로 참여

2 전달체계 투명성 제고

- 온·오프라인 부정수급 신고센터 운영, 비정기 현장점검 등을 통해 부정수급 관리·점검을 강화하고, **다수 적발기관은 사업 참여 제한**

3 전담인력 처우 개선 및 전문성 강화

- 최저임금 수준인 수행기관 전담인력 급여(135만원)를 시·도 전담인력 급여의 **90% 수준(22년) 인상 및 고용기간 확대(11→12개월)**
 - * '17년 월 135만원, 인건비 11개월 지원 → '18년 157만원, 퇴직금 포함 13개월 지원
-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 **도·농간, 담당 업무에 따라 전담인력 배치기준 차별화 검토**(현행 어르신 154명당 인력 1명 지원)
- **세법·노동법 및 사업 개발에 대한 교육**을 통해 노인일자리 전문가로 전담인력 육성('18년~)

4 노인일자리 법적 근거 강화 및 사회적 인식개선

◆ 노인의 사회참여를 다같이 응원하겠습니다.

- 노인생산물 인증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설립 등에 관한 법적 근거 강화
 - * 국회 복지위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에 관한 법률」 등 노인일자리법 제정안 계류 중
- 고령 근로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공익광고 제작, 고령사회 서포터즈 운영 등 대국민 캠페인 전개**
 - **연령차별(연령주의), 노인 생산성에 대해 연구 수행 및 확산**을 통해 노인의 능력에 대한 객관적 근거 마련 및 인식 개선

3 우수 노인고용기업 인증 및 지원(現 고령자친화기업 개편)

- 노인 **다수 고용기업, 양질의 일자리 창출기업** 등을 우수 노인고용기업으로 인증하고 사회보험료, **홍보, 환경개선비 등 추가 고용 확대 방안 검토**
 - * 우수 노인고용기업 인증 관련 고용부와 협의

4 시장형사업단 자립 촉진

- 성과가 우수하고 지역 특색이 있는 **시장형사업단**이 재정외존에서 벗어나 **고령자친화기업, 협동조합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 전담인력 지원, 인건비 사용 범위 확대, 집중 컨설팅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성과 평가를 통해 **시장형사업단 지원 일몰제 도입 검토**

5 기업의 고용창출형 사회공헌 지원 강화

-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와 네트워크 구성, 기업의 특성, 노인 활용방안 진단·분석**을 통한 사업아이템을 발굴해 **사회공헌자금이나 노하우를 노인일자리에 연계**
- 노인 직접 고용 외에도 기업이 **노인일자리 사업에 자금을 위탁**하거나, **노인 교육·훈련 제공, 노인생산물 컨설팅 및 판로 지원** 등 촉진

그간의 추진 사례

- ▶ **한국중부, 남동발전: 기부금을 통한 고령자친화기업 설립**
 -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 대상 **60세 이상 노인 10명을 채용**할 수 있는 **신규 기업 설립 자금 지원**(총 10억원)
 - 제주 샬레카페, 주)달보드레(모시떡 제조) 등 설립
- ▶ **복지부-우리은행-CJ 대한통운-이마트 24 업무협약('18.1월):** 노인생산물 판로 개척(공통), 물류 유통(CJ 대한통운), 금융지원(우리은행), 시니어편의점(이마트 24) 개소 지원
- ▶ **코오롱 패션사업본부: 가방 제작 시장형사업단의 디자인 지원**
- ▶ **스타벅스: 샬레카페사업단 바리스타 교육 지원**

3. 안정된 민간일자리 확대 (미니잡 창출 기반 마련)

◆ 노인의 기술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함께 민간일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1 시니어인턴십 개편

- 기존의 단순 직종/직무 중심*, 단기 일자리에선 벗어나기 위해 **전략 직종**에 노인을 고용**하거나, **장기 고용 기업,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제공 기업에 대해 지원** 차등화
 - * 시니어인턴십 주요 취업 직종('17년): 시설관리원(27.7%) 운전 및 운송 관련 종사원(11.7%)
 - ** 노인 취업이 저조하나 노인이 근무하기 적합한 직종/직무 개발 및 선정
- 시니어인턴십 **지원 단가, 시니어인턴십 운영기관에 지원되는 채용 성공보수*도, 전략 직종 채용 등에 따라 차등화**하고 **평가체계 개편**
 - * 현재 실제 고용유지여부, 직종과 무관하게 채용성공보수 지급(3~7만원)

2 세대통합형 일자리 지원(現 기업연계형 개편)

- 은퇴자의 기술·기능 전수를 위해 **숙련기술직 은퇴자를 청년 멘토로 고용**한 기업에 대해 **직·간접비용 지원**(가칭 '시니어멘토단' 도입)
 - **기술 전수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필요한 분야**(제조업, 서비스업)를 발굴해 지원 및 직무모델 개발

프랑스 및 일본 사례

- ▶ 프랑스 세대계약 26세 미만 청년과 57세 이상 근로자 채용시 연 8천유로 지원(300인 미만)
- ▶ 일본의 아마모토 금속제작소
 - 고령자와 청년층이 한팀이 되어 맨투맨으로 기술 및 기능을 전수하고, 고령자가 청년층의 국가기능자격증 취득 지도
- * 출처: 제2차 노인일자리종합계획 연구 공청회 발제문(노인인력개발원 2017)

4. 사회공헌일자리 지원

◆ 시니어사회공헌단 등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1 시니어 사회공헌단(시니어 프로보노) 도입 추진

- 베이비부머의 노인세대 진입 등 증가하는 **전문직 은퇴 노인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해 공공서비스 보완** 검토
 - * 활동내용별로 자격·경력 기준, 필수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마련
- **(활동내용) 보건·복지서비스, 주요 국정과제 중 인력·재정 부족**으로 취약한 분야 중 노인일자리로 사업화가 가능한 활동 선정

<활동 프로그램(안)>

구분	제공 서비스	협력단체
치매 공공 후견지원	- 저소득·치매 독거노인을 위해 공공후견 서비스 제공(법률문제, 재산관리 대리)	독거노인지원센터 등
시니어 취업컨설팅	- 지역 내 일자리 발굴, 노인 대상 민간일자리 상담 및 연계, 매칭서비스 제공	공무원연금공단, 기업체 등
시장형사업단 컨설팅	- 시장형사업단/전담인력 대상 세무·회계, 영업 관련 컨설팅/교육	세무사협회, 전국 경제인연합회
취약아동·청소년 교사	- 저소득 취약아동 대상 학과목, 대입준비, 진로상담 등 교육	교수협회 등
입원자 상담	- 보호자 없는 병원, 공립요양병원에 방문해 노인 말벗, 상담 제공	상담사단체, 사회복지사협회 등
공공 사회복지업무 도우미	- 시군구 및 동단위 사회복지업무에서 현장 확인, 시각장애 발굴, 상담보조, 자료 정리	공무원연금공단, 사회복지사협회 등
시니어 강사	- 퇴직 교수, 교사 등이 평생교육원, 노인 복지관 등에서 노인 대상 강사로 활동	교수협회 등
지역사회 건강지도사	- 일정 자격증 소지자가 지역 내 아침 체조, 체육활동 지도	체육분야 은퇴자

- **(지원) 참여인력에 대해 활동수당 지원, 명함 제작 등 인정 포상 지원**

2) 공익활동 수당 인상 및 지역특화사업 육성(現 공익활동 개편)

- 표준화된 사업에서 벗어나 지역 특성에 부합하고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지역특화사업, 전문형 사업 육성

지역특화사업 사례

- ▶ 전주 한옥마을 어르신 포도대
 - 지역특화사업으로 선정되어 초기투자비(약 2천만원, 개발원 지역사업) 지원받은 후 전국적으로 확대, 현재 공익활동으로 운영 중
- ▶ 제주올레길 이야기 할머니
 - 공익활동으로 운영 중이며, 관광객 대상 제주역사 및 문화 안내, 올레길 안전 점검 등 담당

- 사회적 수요가 높은 지역특화사업, 전문형 사업은 교육-근로시간을 연장하고, 공익활동 수당 차등 지급(최대 40만원), 초기 사업비 지원 등 검토

	현행	향후	
	전 활동	일반형	지역특화, 전문형
활동시간	월 30시간	월 30시간	월 40시간
교육	연간 10시간 (수행기관 자율)	연간 20~30시간 (전문교육 이수)	연간 20~30시간 (전문교육 이수)
참여대상	기초연금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선발시 경력 등 감안)
활동수당	전 활동 27만원	최대 40만원	

3) 재능나눔 및 노인 자원봉사 효율화

- 재능나눔은 다양한 신규 프로그램/유형*을 도입하고 위탁기관 내 수행기관 다변화
 - * 박물관 전시, 외국인 관광통역 등 안내활동, 인문학, 역사 및 진로지도 등 비학습분야 지도
 - 장기적으로 내용이 단순하거나, 타 분야와 중복되는 프로그램은 통합 검토
- 노인 주도적 자원봉사클럽(봉사단) 운영 및 지원을 통해 노인의 사회 참여 및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 * 자원봉사클럽(봉사단) 및 노인자원봉사 성과분석, 효율화방안 등 중장기 발전방향 연구용역 추진

참고 3 정책대상별 노인일자리 수(안) (+37만)

2017년	2022년	대상
43.7만개	80만개 +α	
공익활동 307천	공익활동 526천	만 65세 이상 고령·저소득자
재능나눔 45천	재능나눔 시니어 사회공헌단 80천	만 60세 이상 베이비부머 등 전문직 은퇴자
시장형사업단 55천	시장형사업단 131천	만 60세 이상 중상위 소득자 민간기업 취업 희망자
고령자친화기업 25개소	고령자친화기업 30개소	
인력파견형 19천	인력파견형 38천	
시니어인턴십 6.9천	시니어인턴십 11.9천	
기업연계형 3천	기업연계형 8천	

V. 추진일정

추진과제	소관 부서	일정
1. 참여자 역량 및 보호 강화		
1-1 직무역량지표 개발	보건복지부	'18~'22년
1-2 개인별 훈련계획 수립 및 사후관리체계 구축	보건복지부	'18~'22년
1-3 맞춤형 교육훈련 인프라 강화	보건복지부	'18~'22년
1-4 참여자의 인권 및 안전보호 강화	보건복지부	'18~'22년
2. 인프라 강화		
2-1 60+ 일자리 DB ('백세누리플러스') 구축	보건복지부	~'22년
2-2 노인-일자리 매칭플러스센터 지정	보건복지부	'19~'22년
2-3 노인생산물 공동브랜드화 및 판로확대	보건복지부	'18~'22년
2-4 상권분석 및 성장지원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	'18~'22년
2-6 전달체계 다변화 및 투명성 제고	보건복지부	'18~'22년
2-7 전달인력 처우 개선 및 전문성 강화	보건복지부	'18~'22년
2-8 법적 근거 강화 및 사회적 인식 개선	보건복지부	'18~'22년
3. 안정된 민간일자리 확대		
3-1 전략직종 중심으로 시니어인턴십 개편	보건복지부	'18~'22년
3-2 세대통합형 일자리 지원	보건복지부	'18~'22년
3-3 우수고용기업 인증 및 지원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18~'22년
3-4 시장형사업단 자립 촉진	보건복지부	'18~'22년
3-5 기업의 고용창출형 사회공헌 지원 강화	보건복지부	'18~'22년
4. 사회공헌일자리 지원		
4-1 시니어 사회공헌단(시니어 프로보노) 도입 추진	보건복지부	'19~'22년
4-2 공익활동 수당 인상 및 지역특화사업 육성	보건복지부	'18~'22년
4-3 재능나눔 및 노인 자원봉사 효율화	보건복지부	'18~'22년

참고 4 '18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개요

- (목적)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사회활동을 지원('04년~, 노인복지법 제23조)
- (규모) '18년 51만개, 1조 2,524억 원(국비 6,349억, 지방비 6,175억)
 - 시장형 8.6만개(16.7%), 공익활동 37.2만개(70.3%), 재능나눔 5.2만개(10.2%)
 - * '04년 2.5만개 이후로 연 평균 24.6%씩 사업규모(물량기준) 증가
- (추진체계) 지자체보조(서울 30%, 지방 50%), 민간경상보조(국비 100%)
 - (지자체) 복지부→지자체→수행기관 1,217개 : 시장형·공익활동·인력파견형
 - (민간) 복지부→노인인력개발원(→기업 등) : 시니어인턴, 고친기업 등
복지부→대한노인회, 노인복지관협회 : 재능나눔
 - * 수행기관 : 노인복지관(229개), 노인회(189개), 지자체(170개), 시니어클럽(140개) 등

< 분야별 지원내용 >

유형	내용	지원	대상	평균 보수 (17년 기준)	일자리수 (천개)		
총 계							
510							
사회활동	공익활동	老老케어, 보육시설 봉사, 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한 16개 프로그램	월 27만 9(12)개월 활동비	기초연금수급자	27만원	372	
	재능나눔/	노인의 재능(자격, 경력)을 활용한 상담안내, 학습지도 등	월 10만 6개월 활동비	만 65세 이상	10만원	52	
민간 노인일자리	시장형 사업단	실버카페, 반찬기회 등 제품 제조·판매, 서비스 제공 등 사업을 통해 수익 창출	연 210만원 사업비	32만원 (전문서비스제외)		49	
	인력파견	가사·간병인, 경비원, 지역일손 도우미 등 수요처에 파견 지원	연 15만원 사업비			102만원	23
	시니어 인턴십	민간기업 인턴기회(3개월) 제공 후 계속 고용을 유도	월 최대 45만원 6개월(3+3개월) 인건비 보조	만 60세 이상		105만원	8
	고령자 친화기업	노인 적합업종 분야 내 노인 다수 고용 기업 설립 또는 우수고용기업 지원	최대 3억원 사업비			110만원	2
기업연계형	기업과 함께 노인일자리 창출 모델 개발 및 관련 설비·서비스 등을 지원	연 200만원 내의 사업비(설비 등)			163만원	4	